

# “종달리 바닷물에 오리다리 꺾어진덴 했주”

구좌읍 종달리 김도원 할머니

등록 : 2010년 06월 15일 (화) 18:13:48  
최종수정 : 2010년 06월 15일 (화) 18:13:48

고 미 기자 ✉ popmee@hanmail.net

지난해 86세까지 헛물레 물질…올해는 한번도 바다에 나서지 않아  
풍선으로 우도 근처까지 이동, 난바르 작업 등으로 ‘힘있는 소리’  
“달 스무발 아래까지 내려서 작업도” 대상군 기억 이제는 희미해져



▲ 구좌읍 종달리 중통굴 포구

별 좋은 오후, 김도원 할머니는 바다 대신 동네로 마실을 간다. 올해 우리 나이로 87살. 아직은 정정한 걸음걸이에 기억도 생생하다. 바깥 물질 얘기며 힘들었던 사정이며 몇 번이고 “다 늙은 할망신디 물영 뭐 하젠” 손사래를 쳤지만 하나하나 꺼내놓는 얘기들에 눈 앞에 바다가 펼쳐진다. 신세타령처럼 지난 세월을 늘어놓는 목소리가 숨비소리 마냥 들린다.

△“종달리 바닷물은 오리다리 꺾어질 정도”

“...삼돛 안 배질호긴/선주사공 노넘이고/한질 두질/수비친 물에/삼시끓엉 물질호영/한푼 두푼 모인 금전/정든님 술값에 다들어간다/어기야차 소리엔/배올라 가는다/뒤야차 소리엔/달감아 가는구나...”

가만 가만 시작한 소리에 김 할머니의 목에 핏대가 선다. 네(노)를 잡고 있는 듯 짝 찢 주먹에도 힘줄이 그렇그렇하다. 거칠다 못해 울퉁불퉁 딱딱해진 할머니의 손은 그렇게 힘겨웠던 세월을 담고 있었다.

구좌읍 종달리에서 물질을 한 할머니는 다른 잠녀들과 마찬가지로 1970년대까지 풍선(돛배)의 노를 저어가며 작업을 했다.

“개염여, 너븐여를 영 지남 벌러진여를 지나가믄 저기 우도가 보여”

사방 어디로든 푸른 바다밖에 안 보이는 상황에서 작업할 바다는 눈에 띄는 지형지물로 확인을 했다. 우도가 가까이 보이면 작업을 할 채비를 했다.

겨우 숨을 고르고 천근만근 노를 젓다 물이 보이기 시작하면 저절로 흥이 난다. 느리게 이어지던 소리도 어느새 툭툭 튀어 선창과 뒷소리에 흥이 배긴다.

종달리쪽 바다는 조수 간만의 차가 커서 작업한 물건을 들고 올라오는 일이 쉽지 않았다. 김 할머니는 “시흥리 경계 쪽에서 작업을 하고 나면 물건을 하는 것보다 망사리를 지고 올라오는 일이 더 힘들었다”며 “얼마나 물살이 센지 ‘종달리 바닷물에 오리다리 꺾어질 정도’라는 말도 있었다”고 말했다.

1970년대 들어 고무뚫이 보급되면서 물질은 더 깊은 바다에서 이뤄졌다. “뚫을 스무발 씩 내려 작업을 했다”는 김 할머니는 “그 때는 물건을 곧잘 해서 대상군 소리를 들었다”고 했다.

잠녀가 한번 물을 차고 이동하는 거리인 ‘한 발’을 대강 잡아 1m 정도라고 하면 20m가 넘는 바다 속을 고무뚫 하나 의지해 드나들었다는 말이다.

그랬던 김 할머니는 이제 바다보다 물에 있는 시간이 더 많다. “작년까지는 양식장에서 작업을 했는데 올해는 바다에 가보지 않았다”는 김 할머니의 눈이 슬퍼 보였다.

△일본까지 바깥 물질 나서



▲ 등짐을 진 잠녀들. <사진으로 보는 제주역사 발췌>

“지금 내 나이에 물질하는 사람이 어디 이서, 건강허난 나이가 많아도 작업을 하주”

김 할머니는 “지난해 천초 3마대(1마대 당 30kg)를 작업해 손자들 용돈도 주고 했다” 며 자랑했다. 이젠 헛물레 물 가까이서 하는 작업도 쉬고 있지만 올해 천초 작업에는 손을 보낼 계획이다.

60년 넘은 물질 인생은 책으로 써도 모자랄 정도다. 한참이던 스무살,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첫 결혼에 실패했던 일은 힘들었던 기억에도 한 참 후순위다.

일본 츠시마와 사쿠라지마까지 물질을 갔다. 당시 종달리 어른 소개로 일본 츠시마에 가 미역작업을 했다. 사쿠라지마에서는 두달간 성게작업을 했다.

부산서 배를 타고 일본까지 가는 것만도 쉬운 일을 아니었다. 일본에서는 테왁망사리 대신 ‘담뽕’라고 부르는 나무통을 이용해 작업을 했다. 속옷에 수건을 쓰고 족쇄눈을 이용했다.

전라도와 경상도로 바깥물질을 나갔다.

전라도 용바위에서 3년간 미역을, 벌바위에서는 2년간 전복과 홍합을 잡았다.

경상도에서는 당포와 사랑도에서 난바르 작업을 했다. 김 할머니는 “‘난바르’라고 한배에 여덟 아홉씩 타고 작업을 했다”며 “배에서 잠을 자며 한 일주일씩 작업을 했다”고 기억을 더듬었다.

일주일 정도 배에서 생활을 하다보니 작업한 소라와 전복은 배가 이동할 때는 갑판에 올리고, 배를 멈출 때는 바다에 넣어두곤 했다. “가치가 떨어지면 값을 잘 안쳐주니까 작업한다고 배를 멈출 때마다 생복(전복)이영 소라 물을 먹었다”고 말했다.

잠녀는 타 지역으로 미역물질을 가기 전이 더 바빴다. 1~2월 제주 미역을 미리 해두고 3월이면 육지 미역바다를 산 전주 밑으로 가 미역을 켜다. 그렇게 번 돈은 전주와 6대 4로 나눴다.

힘들었던 만큼 절약도 몸의 한 부분 같다. 집을 고쳐준다는 자식들의 권유도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사냐”고 거절했다. 할머니집에는 38년 전 부산으로 바깥물질을 하던 동생을 통해 산 싱가미싱이 고스란하다.

“그 때 돈으로 8000원을 주고 샀는데 손에 익어서 그냥 두고 있다”며 “아직도 멀쩡하니 잘 쓰고 있다”고 했다.

한번 만들어 입는데 이들은 꼬박 걸렸던 흰 적삼이며 소중이 생각이 나는지 할머니의 입꼬리가 가만히 감긴다.